

방산업체 대표단 일본방문

양국 방산업계 우호증진 및 협력방안 논의



한국 방산업체대표단이 일본 방위간화회를 방문하여 기념 촬영을 하였다

한국 방산업체 대표단의 일본 방문이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동북아시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방산업계가 우호 증진 및 협력방안을 모색코자 매년 상호 방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은 올해로 5차에 이르고 있다.

방진회 安秉吉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23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일본 방위청, 기술연구본부, 이시가와지마하리마社, 도시바社, 미쓰비시社 등을 방문해 일본의 방산기술과 정책을 둘러 볼 수 있었다.

21세기를 대비한 해상무기체계 발전 방향

— 제 1 회 해상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지난 6월 27일, 28일 이틀에 걸쳐 국방과학연구소 제2연구개발본부(진해) 주최로,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해상무기체계 분야의 첨단 기술정보 교류는 물론 연구개발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산·학·연 및 군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1회 해상무기체계 발전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裴文漢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강력한 해군력으로의 발전은 필수적이므로 국내 전문 기술능력의 고도화가 시급한 과제이며, 이러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함정, 수중무기, 수중감시 및 함정전투 체계의 전문 분야별로 국내 관련 기술능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약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연구개발 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정, 수중무기, 수중감시 및 함정전투 체계

4개 분야로 나누어 기술논문 발표가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군, 업체, 학계에서 450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21세기를 대비한 해상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발전방향에 대한 6편의 주제발표와 진지한 토의가 있었으며, 4개 전문분과에서 총 39편의 기술논문을 발표하여 핵심기술들에 대한 기술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해상무기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 자 신형 지프 軍 기동장비로 채택

아시아 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신형 지프가 차세대 軍기동차량으로 채택되었다.

신형 지프는 기아의 스포티지 새시를 기본으로 자체개발 가솔린 엔진을 장착해 엔진출력을 139마력으로 높였으며, 파워핸들과 주행중 전륜구동장치로 변속이 가능하고, 인체공학적 설계로 거주 공간을 확대해 운전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아시아 자동차는 내년 1천2백대를 시작으로 2천년까지 약 4천억원 어치의 신형지프를 국방부에 납품하게 된다.



한국의 국가전략과 과학기술 정책 세미나

— 세종연구소 주최,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필요

세종 연구소는 지난 6월 28일 『한국의 국가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1세기를 앞두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과학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심포지엄은 제1부 「국가발전과 과학기술」, 제2부 「국가안보와 과학기술」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韓培浩 세종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대국들은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의 핵심적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의 육성과 발전이 21세기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요소”라며 “그동안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을 검허하게 평가하고 방위산업발전과 국방 및 민수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의 국가전략과 과학기술」

을 주제로 한 咸仁英 포항공대 석좌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제1부에 「신국제질서와 과학기술의 역할」 李軫周 생산기술연구원장,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 金定德 과기처 연구개발조정실장, 제2부로 「한국의 안보와 방위산업」 白永勳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정보통신기술혁신과 방위산업」 徐延旭 한국이동통신 사장, 「국방과학기술과 국가 과학기술발전 연계방안」 姜麟求 연암공전 학장의 주제발표와 열띤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